

2005문화의달기념식 치러져

‘전통이 미래다’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진행된 <2005문화의달> 기념식이 지난 10월 15일 전주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 문화예술에 크게 기여하고, 미래의 우리 문화예술을 짊어지고 나갈 예술인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2005문화의달행사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주시가 후원한 올해의 문화의 달 행사는 기념식이 있었던 15일을 전후하여 전주시내 곳곳에서 많은 행사들이 치러졌습니다. ‘소리로 보는 영화’ ‘대한민국 명인명무명창’ ‘국악플러스’ 등 ‘전통의 본질, 문화의 원형’이란 이번 행사의 주제와 맞게 전주시민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문화의 날, 문화의 달인 10월뿐만이 아닌 일년 내내, 일상에서 숨쉬는 우리 문화예술을 접하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문화훈장 서훈 대상자

-은관문화훈장 : 김성구(법명:월운)(봉선사 주지), 전숙희(수필가), 김충실(예명:김백봉)(무용인),故 고우영(만화가)

-보관문화훈장 : 이종한(언론인), 김병모(한양대 교수), 이봉순(한국사회과학도서관장), 이복형(충남미박물관장),故 임종국(문학평론가), 황용엽(서양화가),故 윤용해(작곡가), 안성기(영화배우), 김남진(예명:남진)(대중예술인),故 헬렌 포스터 스노우(필명:님 웨일스)(전 극동아시아민주정책위원회 위원)

-육관문화훈장 : 조남식(전국문화원연합회 부회장), 김태원(영천문화원 고문),故 오윤(만화가), 권창륜(서예가), 김규원(예명:김성일)(무용인)

-화관문화훈장 : 정범태(사진가), 신영희(국악인), 홍성덕(국악인), 정광태(대중예술인)

▶제37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수상 대상자

-문화 : 조상호(나남출판 대표)

-문학 : 천양희((사)한국시인협회 기획위원)

-미술 : 최익순(서울대 명예교수)

-음악 : 모테트합창단

-연극 : 무용 : 국립발레단

-대중예술 : 이현세((사)한국만화가협회 회장)

▶제13회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대상자

-문학 : 김연수(소설가)

-미술 : 조병철(조습(화가)

-음악 : 한명원(이탈리 베르디 음대 성악과 재학)

-전통예술 : 이용탁(국립국악관현악단 부지휘자)

-연극 : 이영호(이해제)(극단 신기루 만화경 상임연출)

-무용 : 황재원(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영화 : 배웅준(영화배우)

-대중예술 : 나윤선(재즈 보컬리스트)

문학, 작가의 목소리로 남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크코예술정보관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우리 문학사를 대표하는 문인들을 모시고, 당신들의 생생한 육성으로 작품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작가 자신의 육성으로 직접 낭독한 문학 작품을 영상으로 기록·보존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 프로그램은, 책 속에서 숨죽이고 있던 활자들이 작가의 생생한 목소리로 되살아나는 활기찬 문학 기록의 현상이 될 것입니다. 문학평론가 최성일의 진행으로 박완서(10. 18), 마종기(10. 25), 강은교(11. 1), 현기영(11. 8), 정현중(11. 15), 오정희(11. 22), 천양희(11. 29), 황동규(12. 6), 홍성원(12. 13), 신경림(12. 20)의 작품을 다룰 것입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6시까지 예술의전당 내 아크코예술정보관 3층 다목적감상실에서 선착순 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크코 예술정보관(02-760-4673, 46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셰익스피어와 사랑을……’ - 목요일의 연극이야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2005년 하반기 ‘목요일의 연극이야기’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에서 8시 30분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내 아크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무료로 개최합니다. 학생, 직장인, 주부 등 일반인 누구나 강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연극이야기의 주제는 세계 연극사상 최대의 극작가 ‘셰익스피어 (William Shakespeare, 1564~1616)’입니다. 홍유진 동덕여대 방송연예과 교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10월 13일 ‘셰익스피어는 누구인가?’를 시작으로 셰익스피어 연극 느끼기(10. 20), 셰익스피어극의 극장의 특성(10. 27), 외부 강사 초청(11. 3/11. 10), 셰익스피어 극 중 인물과 나(11. 17), 셰익스피어 극체험(11. 24)과 강좌 마지막 날인 12월 1일은 셰익스피어 연극을 관람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예술진흥실 공연예술팀(김성량 02-760-4584)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해마다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마로니에전국 백일장이 문학을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공연, 전시, 문화예술 관련 행사 자료를 보내주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월간 『문화예술』과 연간 『문예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 『문화예술』의 ‘문화달력’은 공연, 전시, 문화예술 관련 행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달력’에 실리는 내용은 문화예술단체(개인)에서 보내주시는 자료들로 꾸며지고 있습니다. 또한 『문예연감』의 분야별 문화예술 활동의 기초 자료로 쓰여집니다. 보다 내실 있는 발간물로 거듭나려 노력하고 있는 저희 잡지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공연, 전시, 문화행사 자료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협조 바랍니다.

- 보내주실 자료 : 문화예술단체(개인)의 공연, 전시, 문화예술관련 행사의 보도자료 및 사진자료
- 보내주실 곳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홍보미디어팀 월간 『문화예술』 『문예연감』 담당자 앞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번지
- 전화번호 : 02-760-4568
- E-mail : magazine@kcaf.or.kr

제23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입상작 발표

그동안 생활 문학의 텃밭이 되어 온 마로니에전국 여성백일장이 23회 째를 맞아 지난 10월 13일 예술위원회 본관 및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명실 공히 전국 최고의 여성 백일장으로 발전해오면서 일상 속에 파묻혀 숨겨진 여성들의 섬세한 감수성이 이번 백일장에서도 뽐어져 나왔습니다. 시, 산문, 아동문학의 세 부분으로 운문은 '고래', '상강', 산문은 '외출', '물방울'을 주제로 300명의 참가자들이 경합하여 30명의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장원은 최세라(시), 백승연(아동문학), 최분임(산문) 씨가 차지하였으며, 공정한 심사를 위해 이경림 신현림(이상 시), 서재환, 임정진(이상 아동문학), 김신, 구효서, 이현수(이상 산문) 7명이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백일장이 끝나고 소설가 오정희의 '나의 삶과 문학'이란 주제로 문학강연이 이어졌습니다.

해마다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시는 참가자들에게 감사드리며, 마로니에전국백일장이 문학을 사랑하는 여성들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제23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수상자 명단

▶ 시부문

구분	성명	작품명	출생연도	거주지
장원	최세라	하늘로 날아오르는 고래	1973	서울 창4동
우수상	황경후	고래	1958	서울 구로1동
장려상	한선자	고래	1968	서울 봉천7동
	한미숙	상강	1958	충북 청주시
	엄준미	고래	1963	경기도 파주시
입선	조정희	상강	1949	서울 안암동 3가
	장맹순	받이면 고래들의 노래를 듣는다	1965	서울 상계2동
	양해순	상강	1957	경기도 안산시
	유현정	고래	1973	경기도 고양시
	이진희	상강	1979	서울 장안4동

▶ 아동문학부문

구분	성명	작품명	출생연도	거주지
장원	백승연	정우의 외출	1964	경기도 고양시
우수상	박선미	박쥐의 친구 고래	1971	서울 중계동
장려상	이순미	상강	1959	경기도 고양시
	김은하	차차의 달리기	1968	서울 신림12동
	정혜숙	아기스님의 외출	1965	경북 포항시
입선	전금희	상강	1963	경기도 수원시
	함선정	상강-할아버지 머리칼	1962	강원도 춘천시
	양춘자	외출	1964	서울 중계2동
	소선순	나의 물방울 감옥	1967	서울 쌍문동
	박은정	물방울을 찾아서	1978	서울 연남동

▶ 산문부문

구분	성명	작품명	출생연도	거주지
장원	최 분임	마지막 외출	1962	경기도 시흥시
우수상	노은희	외출	1977	경기도 구리시
장려상	최영옥	외출	1965	경기도 고양시
	김윤서	외출	1982	서울 신정1동
	김보흠	외출	1979	경기도 성남시
입선	안옥순	외출	1959	서울 정릉2동
	이석영	물방울	1965	경기도 광주시
	윤종미	외출 어머니 계신 곳으로	1971	경기도 성남시
	윤보인	외출	1979	서울 자양1동
	이상미	물방울 그 힘	1964	서울 홍제3동

▶ 시부문 장원

하늘로 날아오르는 고래

- 최세라 -

607호에 고래가 산다

육조에서 철썩이던 천둥벌거숭이 뛰어나와

엄마, 날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날 수 있어요?

손에 손에 휴지를 팔랑이며 뛰어다닌다

날기 위해서는 먼저

숨을 참아야 한단다 중생대의 이크티오사우르스가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랬던 것처럼

짜디짠 바닷물이 심장에 가득 찼 때

두 손이 지느러미로 바뀌는 거란다

어떻게 숨을 참을 수 있어요?

그리움이 흘러나와 척추를 타고 발바닥에 고이면

우리가 사는 집 가득 바닷물이 들이차고

심해의 고래가 기억의 배가 되어 먼 바다로 데려간단다

여기 해안선을 달음박치는 너와 나,

우리가 추억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파도는 고래의 마리오네뜨가 되어 어깨를 들썩이고

가슴에 묻은 죽은 사람들의 뉘이 백색왜성으로 떠오르면

드디어 고래를 좇아 심해를 날아다닐 수 있게 된단다

추억이 뭐예요?

추억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힘이란다

성묘 가지 않아도 맑은 술 한 잔 봉분에 뿌릴 수 있고

조그만 물살에도 힘없이 떠내려갈 때

와락 잡을 수 있는 역센 수초란다

이것 보세요, 엄마

고래가 비행기같이 바다를 날아요

추억을 모르는 아이가 활개치며 팔딱팔딱 뛰다가

육조로 돌아가 파도를 일으킨다

문득 고래의 휘파람소리 내 집에 가득하다

▶ 동화부문 장원

정우의 외출: 학교 너머 저 너머로

- 백승연 -

“헉헉헉헉.”

학교에 지각한 정우는 숨을 몰아쉬며 교실 뒷문을 열었어. 그런데 어찌 된 일이람. 교실은 텅 비어 있지 뭐야.

“뭐야? 다들 어디 간 거야?”

그 때야. 쿵쿵쿵, 정우 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나더니 공룡들이 정우를 교실 안으로 밀어냈어. 그래, 공룡. 쥐라기니 백악기니 하는 옛날에 살았던 그 공룡들 말이야. 그 큰 공룡들이 어떻게 학교 안으로 들어왔냐고? 그건 나도 몰라. 아무튼 아이들은 다 없어지고 공룡들만 학교 가득한 이상한 날이었어. 공룡들은 자리에 앉아 소리쳤지.

“선생님, 공부 가르쳐 주세요.”

“나, 나는 선생님 아닌데…….”

정우가 놀란 얼굴로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공룡들은 우는 목소리로 떼를 썼어. 정우는 할 수 없이 읽기 교과서를 꺼내라고 했어.

“거기 디플로도쿠스, 22쪽에 있는 시의 중심 내용은 뭐지?”

“중심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창문 밖으로 기다란 목을 내놓고 땀을 하던 디플로도쿠스는 그제야 목을 구부려 정우를 바라보며 말했어.

“중심 내용을 모르면 어떻게 해?”

정우가 얼굴을 찌푸리며 꾸짖었지만 디플로도쿠스는 능청스레 이렇게 대답을 했어.

“그건 몰라도 이런 시는 알아요! 노란색 별판을 거닐던 디플로/ 초록색 풀숲을 뛰놀던 티라노/ 회색빛 학교에 서 있던 서정우/ 왜 모였을까, 여기 이 곳 학교에.”

“국어는 재미없어요. 수학 공부 해요.”

오른쪽 뒤에 앉아 하품을 하던 티라노사우루스가 무시무시하게 큰 목소리로 말했어.

“아, 알았어. 수학책 꺼내고 2 곱하기 29가 뭔지 말해 봐.”

정우는 바들바들 떨면서 조그만 목소리로 말했지.

“으아아, 난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선생님 보니까 갑자기 배고프다.”

아, 그러더니 한 손에 정우를 움켜쥐고는 입을 크게 벌리는 게 아니겠어. 아휴, 생각해 봐, 티라노의 입이 얼마나 큰지. 게다가 갈치림 뽀족한 이빨들 하며…… 아니, 그런데 저 이빨은 모두 몇 개나 되는 거지?

정우는 티라노사우루스한테 잡혀서도 열심히 이빨 수를 세었지.

“58개. 와아, 티라노, 맞았어. 네 대답이 맞았어. 2 곱하기 29는 58.”

정우가 이렇게 소리치며 팔딱거리자 티라노사우루스가 더 놀랐지 뭐야. 얼른 정우를 내려놓더니 다시 암

전히 자기 자리로 가서 앉으며 중얼거렸어.

“내가 문제를 맞췄어. 내가 답을 맞췄다고.”

간신히 살아난 정우는 휴우, 하고 한숨을 내쉬고는 얼른 다음 수업을 서둘렀지.

“미술 시간이야. 크레파스랑 물감을 꺼내.”

“어디에다 그러요? 도화지가 없어요.”

시조새들이 날개를 퍼덕이며 말했어. 정말이네. 어찌지? 정우가 찢찢매고 있으니까 공룡들은 난리가 났어. 티라노사우루스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고 디플로도쿠스와 시조새는 발을 구르고 날개를 흔들었지. 이런, 이런. 큰 공룡들이 이렇게 마구 움직여대니 학교 건물이 어떻게 됐겠어? 흔들흔들 비틀비틀…… 놀란 정우는 재빨리 초록 물감의 뚜껑을 열어 사방에 뿌렸어. 휴우, 다행이야. 학교 건물이 금세 숲으로 바뀌었거든. 정우는 커다란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 말했어.

“자, 공부하자. 교과서는…… 음, 다 사라졌지만 사회 공부는 할 수 있지. 공룡들이 살고 있고 나무와 풀이 우거진 이 곳의 이름은?”

“몰라요.”

공룡들은 함창하듯 한꺼번에 소리쳤어.

“몰라?”

정우가 고개를 갸우뚱했더니 공룡들은 더 열심히 고개를 가로저었지.

“그럼 좋아. 지금부턴 음악 시간, 그리고 체육 시간, 또 쉬는 시간!”

정우가 이렇게 말하자 공룡들은 필쩍필쩍 뛰며 좋아했어. 정우와 공룡들은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숨바꼭질도 하고 달리기를 계속했지. 어디선가 수업 끝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았어. 기습이 터질 듯이 모두 신이 났거든. 그렇게 해서 정우의 멋진 외출이 시작된 거란다. 학교 밖 외출 말이야. 학교 너머, 저 너머로 끝없이 나아가는 그런 외출 말이야.

▶ 산문부문 장원

마지막 외출

- 최분임 -

“글쎄, 마을을 질러 나갈 수는 없슈, 상여가 마을을 질러 불면 마을 정기가 뚝 끊어진다고 하잖아유, 글구 뉘집 상여도 마을을 질러 나간 적은 한 번도 없구먼유.”

지난 5월 7일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례 절차를 친척들과 동네 어른들이 의논하던 중 불쑥 마을 사람들이 동네 안쪽 골목으로는 상여가 나갈 수 없다고 반기를 들었다. 그러자 가까운 친지 어르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니 뉘 놈의 동네가 마지막 가는 망자의 길을 막어? 지금이 어느 땐데 마을 정기가 어찌고 그러? 그럼 저 가시덤불로 건너가라구? 워디 이런 상놈의 동네가 다 있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마당 이곳 저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부녀회원들이며 동네 사람들이 일손을 놓고 별떼처럼 일어났고 상갓집은 순식간에 살벌한 전쟁터로 변하고 말았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아버님을 보내 드리자고 집에 마련한 빈소가 잘못된 것이었는지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 3일장은 마가 끼었다며 4일장으로 바뀐 장례일, 선산에 마련된 터로 가지 않겠다는 자식들에게 폭언을 퍼붓던 친척들…… 그 와중에 또 하나의 복병이 나타난 것이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당연히 선산 묘지터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 친척들은 자식들이 아버님 뜻이라며 화장을 하겠다고 하자 철딱서니 없는 불효자식들이라며 몰아붙이더니 당신들 뜻이 관철될 때까지 물고 늘어졌고 결국 매장을 하겠다는 다짐을 자식들로부터 받아 내고서야 잠잠해졌다. 어쩌면 그들은 망자와 자식들 생각보다 선산에다 묘터를 마련해 놓고 아버님께 돈을 요구한 자신들의 파렴치를 이 참에 털어버리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아버님의 마지막 길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줄 것이다.

나는 마당에서 펼쳐지는 산자들의 굿판을 뒤로 하고 안방에 마련된 빈소에 앉았다. 빈소 앞에는 2년여 동안 위암으로 고생하다 이제 곧 먼 곳으로 떠날 아버님이 평소 그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 밖의 소란에도 아랑곳없이 날 내려다보고 있었다.

시집 온 지 8년. 그 동안 아버님은 내게 그냥 보통의 시아버지는 아니었다. 때론 내게 늘 결핍이었던 친정아버지의 따스함을, 성격이 매몰차고 냉정한 남편을 대신해서는 위로 같은 지아버의 정을, 가끔은 영·호남을 대표해서 정치, 문화, 스포츠까지 얼굴을 붉혀 가며 격론을 벌이는 친구의 역할까지 기꺼이 해 주었다.

2년여의 시집살이를 끝내고 분가를 했을 때 누구보다 서운해진 분이 아버님이었다. 70평생 목장 일로 묶여 있다 보니 어디 변변한 친구 하나 없고 평생 외출 한 번 제대로 못 하신 분이어서 난 아버님의 팬클럽 대화 상대였다. 그런 아버님의 기분을 잘 알기에 시택에 내려갈 때면 난 누구보다 아버님과의 대화를 즐겼다. 그러노라면 어머니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된 이야기가 그리 많은지…….”

라며 곱게 눈을 흘기기도 했다.

아버님이 분가한 우리 집으로 처음 외출한 건 위암 판정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시골에서 올라오신 날이었다. 그런데 아버님은 당신 발병이 마치 우리 집 외출을 돕기 위한 일이라든 하듯 조용히 말했다.

“야, 내가 병이 안 났음 니들 집에 언제 와 보겠나. 아~ 좋구나.”

그 말을 듣고 있는데 가슴 한쪽이 쿵 내려앉았다. 그렇게 아버님은 당신의 발병이 가져다 준 외출 기회를 즐겼다. 술도 안 하시는 분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간 식당에서 나와 시누이를 상대로 술잔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때마다 아버님은

“소 궁둥이만 쫓아다니다 인생 끝났네. 세상에 내가 니들 집에 와서 잠을 잘 때도 다 있네…….”

라고 중얼거리며 당신 삶을 한탄과 기쁨으로 표현했다. 당신에게 항암 치료는 육체의 고통과 외출에 대한 즐거움이 섞여 있었다.

그랬던 아버님이 이승에서의 마지막 외출을 위해 병풍 뒤에 누워 있었다. 나는 아버님 앞에서 속엿말을 했다.

“아버님, 모든 것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묘지터도, 아버님 뜻도…… 그리고 아버님, 내일 마지막 가는 길, 동네로 못 나가셔도 너무 서운해 마세요. 비록 논밭을 가로지르고 가시덤불을 헤쳐야 하지만 아버님의 이 마지막 외출을 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을 거예요. 이 마지막 육체의 외출이 끝나시면 반드시 저희 마음 속으로 깊게 돌아오실 것을 믿으니까요. 저희에게 다시 돌아오실 거죠? 외출이니까요. 빨리 돌아오세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일손을 놓고 돌아갔다. 상가엔 얼굴 붉힌 친척들만 남고 어둠에 몸을 숨긴 적막만이 집 안을 휩쓸었다. 삶과 죽음은 그토록 다른가? 살아서는 갈 수 있는 길을 죽어서는 나갈 수 없는 길이 된단 말인가. 살아서는 용서되는 일이 죽어서는 안 된단 말인가. 삶과 죽음은 한 줄에 연결된 그 무엇이 아니란 말인가. 삶과 죽음을 분리해 놓고 흥정하는 또 다른 삶은 무엇이란 말인가? 생각이 복잡했다.

결국 장례식날. 아버님은 평평하고 곧은 길을 놔 두고 논밭을 지나 가시덤불을 헤치고 이승에서의 마지막 외출을 했다. 이승에서의 외출은 시간과 사람들의 이기심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 저승에서의 외출은 좀더 자유롭고 풍성해서 자주 우리 곁으로 와 달라고 진심으로 빌었다. 산 자들의 정기를 위해 아버님의 외출은 가시덤불과 언덕을 넘는 길이었다. 입 안에 버석버석 가시를 씹는 기분을 안고 상여 뒤를 따랐다. 아버님의 마지막 외출에 자꾸만 발이 헛디뎠다.



〈제23회 마로니에전국여성백일장〉

예술마을 | 문화달력 | 공연·전시·문화행사 안내

~3 독립신진III — 김재은 / 아크코미술관 소갤러리
~4 제6회 대한민국문인화전람회 / 서울시예박물관
~4 2005예술의전당 청소년연극제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6 극단 골목이 <맨드라미꽃> / 아크코예술극장 소극장

~13 극단 초인 <기차4> / 발렌타인극장 1관
~13 극단 사다리 <하마가 난다> / 사다리아트센터 동그라미극장
~24 기획초대전III — 임동식 / 아크코미술관 갤러리 I
~24 기획초대전IV — 신지철 / 아크코미술관 갤러리 II

1일 서울시향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소프라노 박선휘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바리톤 장철 독창회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한양대음대 2005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PAN 뮤직페스티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화요상설] 김정집 피리 / 국립국악원 우면당
<고양이 늪>(~3) / 아크코예술극장 대극장

2일 아지드 현대무용단 <댄스릴레이 IV—연(緣)>(~3)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소프라노 홍숙희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21c 지성과 감성전(~8)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신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졸업전(~8) / 세종문화회관 별관 1,2전시실
우리함께 전(~8) / 세종문화회관 광화랑
서울 리코더 콘서트 제19회 정기연주회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PAN뮤직페스티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영미가곡협회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제5회 김정림 해금 독주회 / 국립국악원 우면당

3일 듀오 이색콘서트 Here & There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루터란 아이 파텔 콰이어 창단 연주회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KBS교향악단 & 덕영트리오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스페인가곡의 밤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목요상설] 오솔자 백남무용단 / 국립국악원 우면당

4일 서울예술단 뮤지컬 <바리>(~10)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제14회 전국 어린이 연극경연대회(~13)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서울시무용단 정기공연 — 한양설화 I 淸溪(~5)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페라 길라 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한국의 젊은 음악가 시리즈 — 피아니스트 정영하 초청 독주회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가주히토 아비시타 기타 독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염의경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남궁랑 개인발표회 / 국립국악원 우면당
독립신진IV — 채은영(~24) / 아크코미술관 소갤러리

5일 서울시청소년교향악단 제47회 실내악연주회 <2005 Chamber Music>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2005 교과서에 나오는 클래식음악 특별공연 — 실내악의 향연(~6)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교향악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페터슈라이어 고별 독창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토요상설] 유빈형 / 국립국악원 예약당
이호연 제자 발표회 / 국립국악원 우면당

6일 서울신문사 가을밤 콘서트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오혜숙 첼로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한국원로교향악단 제3회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김진우 작곡 발표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김문철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전수교육보조자 오송강 영산법패 발표회 / 국립국악원 예약당
구유희 제6회 정기연주회 / 국립국악원 우면당

7일 서울시합창단 제95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의 사도바울>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국악꽃향기 — 박일훈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한국 색소폰 오케스트라 제5회 정기연주회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베를린필하모닉 아시아투어(~8)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8일 한빛 브라스 앙상블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윤상미 귀국 피아노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피아니스트 패트릭 오번 초청 독주회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대전대학교 교수 음악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토월고전 연극시리즈(~27)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화요상설] 박덕상 무용 / 국립국악원 우면당

9일 국립극단 <맹진사댁 경사>(~13)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소방의날 기념식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불음합창단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제50회 창작미술협회전 및 제30회 공모전(~15)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1,2,3,4 전시실
2005 JAD실내환경디자인 공모전(~15)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1,2전시실
2005 서울산업대 도예학과 졸업작품전(~15)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 1,2전시실
서울, 꿈, 사랑(~15) / 세종문화회관 광화랑
테너 백인수 독창회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숙명여대 추계장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김주영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서울가악회 제12회 가곡, 가사, 시조 발표공연 / 국립국악원 우면당
경기도립국악단 제61회 정기공연 <新市> / 국립국악원 예약당

10일 홍은경 피아노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윤형주 콘서트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11시 콘서트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코리안심포니 제148회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김경운 바이올린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한국전자음악협회 — 국제컴퓨터음악제 2005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유니버설발레단 <지젤>(~13)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목요상설] 아쟁앙상블 / 국립국악원 우면당
극단 퍼터 <여행>(~27) / 아크코예술극장 소극장

11일 중구청 열린음악회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울오페라단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대학생 등단음악회 <새 얼굴과의 만남>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소프라노 백유진 독창회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소진선 호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웅인대학교 국악과 제11회 정기연주회 / 국립국악원 예약당
소리 앙상블 가향 제2회 정기연주회 / 국립국악원 우면당

12일 도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제2회 국악관현악축제(~13)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광진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청소년음악회 — 김대진의 음악교실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권상희 바이올린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이재은 첼로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토요상설] 임종형 / 국립국악원 예약당

김윤덕류 가야금산조보존연구회 연주회 / 국립국악원 우면당

13일 한국의 젊은 음악가 시리즈 — 미래예감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신인 유망주 시리즈 — Young Plus Concert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리사오노 첫 내한공연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김지민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김도실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21세기 正歌人歌 / 국립국악원 우면당
사가야금병창보존회 — 2005함음제 / 국립국악원 예약당

14일 국악꽃향기 — 지원석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제3회 시와 음악이 춤추는 밤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15일 2005 현대일본회국 낭독공연 및 심포자임(~20)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천년의 울림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소프라노 진귀옥 독창회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Quartet21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화요상설] 이문희 가야금 /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5 한양국악제 <정악의 밤>(~16) / 국립국악원 예약당
현대무용단 탐 <25주년 기념 작품시리즈 IV>(~16) / 아크코예술극장 대극장

16일 향기나는 클래식 2005 / 세종문화회관 고극장
2005 아트피아 회원전(~22)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1전시실
2005 이형희 작품전(~22)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2,3,4전시실
우선 류승란 한글서예전(~22) / 세종문화회관 미술고아 신관 1전시실
오옥연 서회전(~22)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2전시실
제19회 단국대학교 동양학과 졸업전(~22)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 1,2전시실
<비주얼 에필로지 물, 흙, 바람>(~22) / 세종문화회관 광화랑
한국남성합창단 창단4주년 기념음악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이주희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17일 국립무용단 제89회 정기공연 <梅窓梅香> — 매화, 창에 어리다(~19)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이애경의 춤 <기운생동, 청춘무락>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소프나노 문예원 독창회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2005 요요마 독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왕해진 첼로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목요상설] 김경숙 무용 / 국립국악원 우면당
KBS국악관현악단 제154회 정기연주회 / 국립국악원 예약당

18일 2005 얼씨구 좋다 <장까전>(~20)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강화자와 그의 친구들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박상미 트럼펫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수원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정영미 비올라 독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파임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만난>(~19)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천안시 충남국악관현악단 제49회 정기연주회 / 국립국악원 예약당
2005년 학연화대합설무 정기공연 — 이명경, 최경자의 춤 / 국립국악원 우면당

19일 <소백산에 핀 연꽃>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감미로운 클래식 2005 Sweet concerto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광진구인과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서울예고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가을에 듣는 성악과 관악의 향연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토요상설] 이척형 / 국립국악원 예약당
2005판소리한마당 — 김수연의 춘향가 / 국립국악원 우면당
2005 춤대작 아라리 — 일(~21) / 아크코예술극장 대극장

20일 유창의 경기예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함부르크 챔버 앙상블 내한연주회(~21)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한국오라토리오 싱어즈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향음앙상블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김수연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한소리국악원 창립 25주년 기념 특별연주회 / 국립국악원 예약당

21일 2005 김호동의 춤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국악꽃향기 — 채치성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22일 최민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한국페스티벌앙상블 제40회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앙상블벨리시모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국립오페라단 <호프만의 이야기>(~26) /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안성수픽업그룹 무용 <선택>(~25)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화요상설] 조순자 가곡 / 국립국악원 우면당

23일 삶과 꿈 챔버오페라 싱어즈 <순락 호텔>(~24)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한국슈베르트협회 제40회 정기연주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한국화 여성작가회전(~29)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본관 1,2,3,4전시실
대한민국 환경조경대전(~29)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신관 1,2전시실
배화여자대학 전통복식디자인과 졸업전(~29) /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별관 1,2 전시실
흔적(~29) / 세종문화회관 광화랑
서울시향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김형선 귀국 바이올린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손범주 피리 독주회 / 국립국악원 우면당
Color of Dance — White(~24) / 아크코예술극장 대극장

24일 <맥베드>(~12, 4) / 국립극장 달오름극장
서울시뮤지컬단 정기공연 <연어>(~30) /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베이스 강은규 독창회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앤드류 토마스 초청 특별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유지수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목요상설] 이윤희 대금 / 국립국악원 우면당

25일 사랑방 왕창판소리 — 송재영의 <춘향가>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KBS교향악단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신민자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제5회 청림예술제 / 국립국악원 예약당
제4회 전국국악대전(~26) / 국립국악원 우면당

26일 스페인 음악과 무용의 밤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창작 뮤지컬 <마리아마리아>(~2006, 1, 8) / 나루아트센터 대공연장
중앙대 윈드오케스트라 동문음악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안젤라 게오르규 독창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박은경, 신민정 듀오 리사이틀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이용주 작곡발표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토요상설] 남리형 / 국립국악원 예약당
지구댄스씨어터의 춤(~27) / 아크코예술극장 대극장

27일 눈으로 보는 우리의 소리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마드리실내악단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킨스 싱어즈 내한공연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황해전 피아노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연철로 앙상블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28일 국악꽃향기 — 임준희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29일 동아콩쿨 수상자 협연 음악회(~30) / 세종문화회관 소극장
코리아나챔버뮤직소사이어티 제23회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원미동인회 정기연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극단 차이무 연극 <마르고 닳도록>(~30) /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화요상설] 임은주 무용 / 국립국악원 우면당

30일 창작작품 발표회 <보는 소리, 듣는 영상>(~12, 2) /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당타이손과 쇼팽 피아노협주곡 전곡의 밤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송정민 클라리넷 독주회 /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
2005안산시립국악단 제22회 정기연주회 — 성악협주곡의 밤 / 국립국악원 예약당
한양가야금연주단 제5회 정기연주회 / 국립국악원 우면당